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욱



풍요의 계절 가을에 인문학 위기론이 다시 제기됐다. 5년 주기로, 1996년 전국...

진단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문학 또는 인문학자들이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능력...

인문학 위기론을 다시 접하며

보면, 인문학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인문학의 위기이며, 대학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다. 결국 이공계 위기, 인문학 위기론이 제기된 핵심 원인은 80년대 대학정원 증대 조치로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이 늘...

적 투자 증대 등의 수세적 주장만을 계속 내세울 경우 인문학을 살리는 길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밖으로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 불안한 한반도 주변정세, 안으로는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 경쟁의 격화와 상시적인 고용 불안,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 다양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F1 대회 성공개최 범정부적 지원 있어야

전남도가 2일 2010년 한국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조인식을 F1 주관기구인 FOM과 체결했다.

이번 F1 대회 유치 성공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F1대회 유치를 기뻐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기장 건립비용만 2천30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에서부터 150만 평에 이르는 경기장 부지 마련과 경기장 사후 활용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질없는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F1 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예산 확보도 지자체만으로는 너무 벅하다. 특별법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F1대회는 전 세계 184개국 약 6억 명이 시청할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다.

한·일 정상회담, 양국관계 정상화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일 열린다. 지난해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11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인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약화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일 정상회담의 단절은 한반도 침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왜곡 행태에서 비롯됐다.

역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려 해오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도 고이즈미 전 총리 못지않게 우익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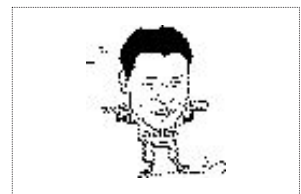
이번 회담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면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無等鼓

미국 뉴욕에는 현재 양키스와 메츠라는 2개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팀이 라이벌로 존재하고 있다.

초기 이들 뉴욕팀이 지존자리를 놓고 구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양키스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자이언츠의 명장 존 맥그로우의 대결이다.

라이벌과 악연



했다. 이 전락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그 약발은 2년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루스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맥그로우의 간판을 간파했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 몸쪽 낮은 공을 공략했다.

그는 또 다시 그 이듬해 만난 자이언츠와 3번째 월드시리즈 대결에서 홈런 3방으로 그동안의 패배를 거머잡아 버렸다.

라이벌전 승리를 위한 야구영웅의 노력과 집념이 맺은 결실이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의 이승엽이 최근 루스만큼 고인에 힘써 있어 있을 것이다.

OB 소속이었던 루스에게 막판 홈런경쟁에서 밀린 것에 빚대어 '악연'이니 '필생의 라이벌'이니 하는 용어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루스는 악연도 라이벌도 아니다. 루스처럼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면 된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NGO 칼럼

방철호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는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진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지만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광주 경제의 상당부분을 떠맡겨주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은 그래서 안타깝기만 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광주의 많은 사

노사화합의 아름다움

야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가 서로 화합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곧 마음에 있다.

잡살과 못사는 것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가정이 화합하고, 이웃이 화합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광주 경제와 지역중추기업인 기아차 동차 광주공장이 오랫동안 파업하여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전 또다시 기아차 동차 광주공장의 파업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러웠다.

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부터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희망을 일컫어나야 한다.

청량한 가을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한다.

<광주시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회장·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하수구 뚫는데 20만원' 바가지 상환 분통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수리를 요청했는데, 기술자라며 찾아와서 하수구 안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많으며 25만원을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5만원을 깎아서 20만원에 합의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리가 끝났다고 했다.

다음날 혹시나 다른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해보니 5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죽음마저 도도한 부엉이



부엉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작은 표범 같다. 부리부리하면서 노랑과 날카로운 눈매를 비롯해 털의 색깔도 비슷하다.

또 부엉이에게서 풍기는 팽귤류 특유의 카리스마는 육식 동물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듯 하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가 발가락 힘이 풀리면서 푹 떨어진다. 한 순간이다.

표범도 마찬가지다. 평생 오르던 익숙한 나무위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수의사는 무엇을 해야할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수의사가 해 줄 일은 거의 없다.

독자마당

부동산 중개업소 신용카드 사용 가능케 해야

다음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신용 카드로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광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어디에서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을 생활화한다면 5천원 이상이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록 제도도 했는데도, 수백만원인 부동산 수수료에는 왜 적용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중개업소가 전세 계약 1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한 달치 월급을 받을 만큼 수수료가 비싸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info, contact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